

한결같은교회는 수도권 영성으로 천국 목회에 힘쓰는 교회입니다

제10권16호
통451호

주후 2022년 4월 17일
창립 2013년 9월 1일

예배 안내

| | | | |
|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
| 주일예배 | 오전 11시 | 매일예배 (월-토) | 개인적으로 |
|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

2022년 표어 : 창세기를 읽자, 아케이나로 읽자(시119:18)

교회 위치



‘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’
(시119:18, 개역한글)

변일국 목사

한결같은교회 컨텐츠

| | |
|---|---|
| 블로그 | 유튜브 |
| http://bygrace.kr | https://bit.ly/3pOgOx4 |

34006 대전 유성구 와룡로136번길 75 (봉산휴먼시아) 208동 404호
010-3412-9201, bygrace.byun@gmail.com, bygrace.kr

주일예배

오전 11시

| | |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시작 | 주기도문 | 다함께 |
| 찬송 | 찬162, '부활하신 구세주' | 다함께 |
| 기도 | | 권영희 사모 |
| 본문 | 요5:24-29, AC.1999:5 | 인도자 |
| 설교 | '주님의 부활' | 변일국 목사 |
| 찬송 | 찬161, '할렐루야 우리 예수' | 다함께 |
| 봉헌 | | 권영희 사모 |
| 광고 | | 인도자 |
| 축도 | | 변일국 목사 |

한결같은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

말씀(*The Word*)을 아케이나(*Arcana*, 秘義, 속뜻)로 읽는 교회
 주님의 신적 인성(*Divine Human*)을 시인하는 교회
 주님의 새 교회(*New Church*)를 준비하는 교회

말씀(*The Word*)에 관하여

성경 66권 중에서 속뜻(*arcana*, 秘義, *internal meaning*)이 있는 성경을 말씀(*The Word*, 총 34권)이라 하며,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. 속뜻은 오직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만 있습니다.

구약 : 창, 출, 레, 민, 신, 수, 삿, 삼상, 삼하, 왕상, 왕하,
 시, 사, 렘, 애, 겔, 단, 호, 율, 암, 읍, 은, 미, 나, 합,
 습, 학, 속, 말 (29권)

신약 : 마, 막, 눅, 요, 계 (5권) (AC.10325)

참고로, 서신서들을 비롯, 나머지 성경들(총 32권, 구약 10권, 신약 22권)은 말씀을 환히 비추는 조명들입니다.

금주의 아케이나

주님의 내면(*the Lord's internal*)은 여호와 자신이셨습니다. 주님은 마치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잉태되듯 여호와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지만, 나뉘어 또 다른 뭔가가 될 수는 없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. 신성(*the Divine*)은 사람처럼 나뉘 수 없습니다. 신성은 하나라는 상태가 늘 유지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. 이 내면에 주님은 인성(*the human essence*)을 결합하셨습니다. 그리고 주님의 내면은 여호와셨기 때문에 사람의 내면처럼 생명을 담는 무슨 그릇 용도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. 이렇게 하여 주님의 인성(*His human essence*) 역시 생명이 되셨는데, 이런 이유로 주님은 종종 나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. (AC.1999:5)

기도제목

- ① 말씀의 속뜻인 아케이나에 대한 사모함과 애정이 일어나도록, 기존에 알던 겉뜻과 달라 당황스럽고 힘들더라도 주님의 빛을 구하며, 주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계속 아케이나 기도, 곧, 내적 시야 열어주시기를 힘써 기도하도록
- ② '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'(요15:7), 혹은 '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'(마7:7-8) 같은 주님의 말씀들을 어린아이같이 천진난만하게 믿는 우리 모두 되도록
- ③ 스마트폰을 좀 내려놓고 기도에 힘쓰도록